

다시 푸는 경서

달마 혈맥론(血脉論) ①

凡夫神識昏昧 不同聖人內外明徹
법부신식혼매 不同성인내외명철
若有疑問不作 作即流浪生死
약유의문부작 작즉유랑생사
後悔無相救處 貧窮困苦
후회무상구처 빈궁곤고
皆從妄相生 若了是心 遷相勤勉
개종망상생 약료시심 체상근면
但無作而作 即入如來知見
단무작이작 즉입여래지견
初發心人 神識總不定
초발심인 신식총부정
若夢 頻見異境 輒不用疑
약몽 빈견이경 첩불용의
약동 빈견이동 첩불용의
皆是自心起故 不從外來
약시자심기고 부종외래

나리라. 만일 이런 일이 있으면 성불할 요인이 되는 것이니, 오직 자기만 알고 남에게는 말하지 말라. 혹 고요한 숲 속에서 다니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누웠을 때, 눈에 크고 작은 광명이 보이더라도 남에게 말하지도 말고 또 거기에 집착하지도 말라. 이는 자기 성품의 광명이라. 혹 어두운 밤에 다니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누웠을 때, 대낮 같은 광명이 눈에 보이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모두가 자기 마음이 밝아지려는 징조인 것이다.

或夜夢中 見星月分明
혹야몽중 견성월분명
亦自心諸緣欲息
역자심제원욕식
역부득향인설
夢若昏昏 猶如陰暗中行
몽약昏昏 유여음암중행
亦是自心煩惱障重
역시자심번뇌장중
亦自知 若見本性 不用讀經念佛
역자지 약견본성 불용독경염불

법부는 아는 것이 어두워서 성인이 안팎으로 밝은 것과는 같지 않다. 만약 의심이 생기거든 의심을 짓지 말라. 의심을 만들면 생사의 바다에 떠돌게 되어 후회하여도 구제할 길이 없다. 빈궁과 고동이 다 망상에서 생겼으니, 만일 마음을 깨달아서 서로 경책하면서 작용하는 일 없이 작용하면 곧 여래의 지견(知見)에 들 것이다.

의심 만들면 생사의 바다 떠돌아

후회해도 구제할 길이 없다

처음 발심한 사람은 정신이 안정되지 못하니, 자주 꿈 속에서 이상한 경계를 보더라도 선뜻 의심하지 말라. 이 모두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기 밖에서 온 것이 아니다.

廣學多知無益 神識轉昏
광학다지무익 신식전혼
設教只爲標心 若識心 何用看教
설교지위표심 약식심 하용간교
若從凡入聖 即須息業養神
약종범입성 즉수식업양신
隨分過日 若多煩惱 舍性轉
수분과일 약다번뇌 승성전
與道相應 自賺無益
여도상응 자잠무익

혹 꿈에 별과 달이 분명하게 보이면 자기 마음의 모든 번뇌가 쉬러는 조짐이니 역시 남에게 말하지 말라. 꿈이 흐려서 밖에서 다니는 것 같으면 마음의 번뇌가 무겁다는 뜻이니 스스로 알아라. 만약 본성을 보았거든 경을 읽거나 열필할 필요가 없다. 많이 아는 것은 별 이익이 못되고 도리어 정신이 혼미해진다. 교법이란 마음을 표방하기 위한 것이니, 마음을 알면 교법을 볼 필요가 없다. 범부로서 성인의 경지에 들고자 한다면 업을 쉬고 정신을 길러서 분수대로 세월을 보내어라. 성내거나 기뻐함이 많으면 성품이 변해 서 도와는 어긋나며 스스로를 속일뿐 이익이 없다.

김원각(시인·역경위원)

夢若光明出現 過於日輪
몽약광명출현 과어일륜
即除習頌盡 法界性現 若有此事
즉여습둔진 법계성현 약유차사
即是成佛之因 唯自知
즉시성불지인 유자지
不可向人說 或靜園林中 行坐臥
불가향인설 혹정원림중행주좌와
眼見光明 或大或小 莫與人說
안견광명 혹대혹소 막여인설
亦不得取 亦是自性光明
역부득취 역시자성광명
或夜靜中 行坐臥
혹야정중행주좌와
眼見光明 與無異 不得怪
안견광명 여주이 부득괴
并是自心 欲明顯
병시자심 욕명현

꿈에 광명이 나타나는 것이 햇빛보다 밝은 것을 보면 남은 습기(習氣)가 다 없어지고 법계의 성품이 나타

큰 스님과의 대화

효란스님

연천 오봉사 주지

장례법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한 관심사가 된 지 오래 되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화장과 납골이 애기된다. 여론조사에서는 화장과 납골을 선호하는 추세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불교에서는 일찍이 화장하는 것이 장례법의 전형으로 자리잡았으며, 최근에는 묘지난과 환경오염의 피해를 들어 화장법을 장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들이든 부모님만은 묘지에 모시겠다는 사람들이 아직 많다.

왜 화장과 납골을 해야 하는지, 일제 치하와 한국전쟁 등 어려운 시기를 헤쳐온 80의 노스님이 젊은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또 일본문화의 유입, 정보통신의 발달, 군포교 등 요즘 우리 사회의 일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효란스님에게 여쭙었다.

“부처님도 다비 유언했어요”

스님께서는 납골당을 준비하고 계신데, 아직 화장률이 높지 않습니다. 불교의 가르침대로 한다면 최소한 불자들은 화장을 해야 할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화장을 왜 기피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움과 슬픔으로만 받아들입니다. 육체에 이끌리는 정 때문이지요. 그러나 불교에서의 죽음은 적멸(寂滅)입니다. 그리고 정토로 환생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민족에게는 유교 사상이 깊이 박혀 있습니다. 조선조 500년 동안 불교를 배척했고, 유교를 한민족 생활의 지배원리로 삼았습니다. 지금도 절에서 제사를 지낼 때 송가락을 쏘는데, 혼백이 와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교의 관습입니다.

유교에서는 죽은 사람도 3년 동안은 살아있는 것으로 봅니다. 상주들이 묘소 옆에 초막을 짓고 묘소를 지켰는데, 죽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살아 있는 동안 어떻게 잘 사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유교를 기초로 생활이 이뤄졌기 때문에 당연히 매장을 했는데, 신라 때만 해도 화장이 많았어요. 일본의 경우는 왕도 화장해서 모신 것이 많습디다. 불교식대로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유교식대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 종단의 권위있는 기관에서 불교의 여러 의식을 불교의 가르침에 합당하게 정비해 시행하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십니다.

불교의 장례법은 석가모니 부처님에게서 유래합니다. 부친인 정반왕을 손수 다비했습니다. 석가모니 자신도 다비하도록 유언을 했고, 다비 후 유골을 여덟 나라에서 가져가 불탑을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화되지 않아 화장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불교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에는 화장 또는 매장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모두 화장하는 것은 불교의 가르침을 생활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일본인의 마음 속에는 불교문화의 뿌리가 깊습니다. 우리 민족은 유교의 뿌리가 깊다보니 화장은 아직도 드물지요. 그러나 앞으로는 화장이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요즘 웬만한 사람들도 화장을 선호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오잖아요. 지난 청명 때 묘소를 파서 유골을 화장해

- 1919년 충남 예산 생
- 31년 수덕사에서 만공 스님을 은사로 득도
- 조선독립운동을 이유로 3년3개월 옥고
- 43년 일본 와세다대학 문학부 졸업
- 46~65년 경성제대 법문학부 및 보성전문 학교 등에서 문화사 강의
- 68년 동천스님을 은사로 건당
- 회암사 등지에서 인거 수행
- 78~83년 조계종 민이회 회장
- 83~84년 군법사단 후원회장
- 현 오봉사 주지, 고대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 창립추진위원장
- (관운량수경 의역과 해설) <불교의 전통신앙> 등 번역 및 저술



서 부린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화장을 해야 하는 이유를 부처님 가르침에 바탕해서 들려주시지요.

▲원래 고대 인도에는 화장, 수장, 토장, 풍장 등의 장례법이 있었는데, 왕과 같은 경우는 화장을 했어요. 화장이 불교 특유의 장례법으로 정착된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구를 화장한 데서 비롯했습니다.

<대반열반경>에 화장에 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가르쳐준 전문성왕의 장례법입니다. “만

지 향탕(香湯)으로 그 몸을 씻고 새 옷으로 두루 몸을 감싸되, 오백 겹으로 몸을 감싼 뒤에 황금의 관에 넣고 기를 거기에 쓴다. 다시 그 황금의 관을 쇠로 된 관 속에 넣고 전단향의 목관으로 그 겹을 다시 싸고, 온갖 기이한 향을 두들겨 쌓아 불을 붙인다. 그리고 나서 사리를 거두어 네거리에 탐을 세워 거기에 넣고, 곁에는 비단을 걸어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왕의 탐을 보고서 그 비론 교화를 사모하여 많은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신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화장했습니다.

화장을 하건 또는 매장, 풍장을 하건

육신이 없어지는 것은 같습니다. 지수화풍(地水火風)으로 돌아갑니다. 불교에서의 죽음이란 육신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형체가 없어지는 것, 모양도 소리도 없어지는 것, 적멸(寂滅)이지요. 그러니 모습도 없어져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49일 동안만 이 세상에 남는다고 합니다. 7일마다 열라대왕이 심판을 하지요. 악업을 지었으면 벌을 받고, 선업을 쌓았으면 공덕을 받는데, 49일째가 판결을 받는 날이죠. 죽으면 모습이 없어지니 예토(穢土)인 이 세상에 모습을 두지 말자는 것입니다. 극락정토(極樂淨土)에서 환생하라는 것이지요.

다만 가까웠던 사람의 유골을 가까이 두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요. 납골은 아직 인식이 넓지 않았어요. 화장을 하지만 납골은 하지 않고 있어요. 화장해서 산에 뿌리겠다는 곁에 두고 모시려는 효성이 있으니 납골도 늘어날 것입니다.

— 납골당을 혐오시설로 생각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있었으리라 보는데요. 어떻게 설득하셨는지요?

▲앞에서도 얘기했듯, 우리 민족의 생각 속에는 죽음이나 해골에 대해 두려움과 혐오감을 갖고 있습니다. 혼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죽어서 혼이 남아 있기 때문이죠. 불교에서는 49일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요즘에는 화장 시설이 잘 돼 있어서 화장에 대한 혐오감을 많이 없애주고 있습니다.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이득을 챙기려는 하나의 방법으로 혐오시설이라거나 나오는 것인데, 설득하기보다는 당연한 이치를 얘기했지요. 누구나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디다. 점쟁이를 하는 말이, 상가에 가면 상문살(喪門殺)이 있어서 화를 당한다. 그러니 상가에 다녀오면 화장실을 한바퀴 돌아야 한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문살을 가지 않으면 누가 죽은 사람을 수습해줄까. 괜한 소리예요.

납골당에 뼈를 모시는 것은 부모와 떨어져 있고 싶지 않은 마음, 효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혐오스럽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생각하기 나름인 것이죠. 납골당에 모셔진 뼈가 무슨 작용을 했어요. 법당에도 유골을 모셔놓고 있는데, 해를 입은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알기 쉬운 불교서적

관음신앙·관음기도법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필독서 4×6 판 / 값 3,500원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육바라밀 수행법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안아바라밀! 4×6 판 / 값 3,500원

육바라밀 수행법은 고해의 증생을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는 큰 배입니다. 이 여섯 가지 바라밀의 정신을 깨달아 실천하면 누구나 행복과 성불을 보장받게 됩니다.

《육바라밀 수행법》이 한편의 책으로 행복하고 청정한 삶을 이루는 지름길을 만나십시오.

예불을 통한 불보살의 가피!!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신국판 / 값 5,000원

많은 불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불문 속에 담긴 의미를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 예불문 속에 깃들여 있는 의미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불을 올리는 불자들이 궁금해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것들, 이 책에 모두 담았습니다.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신국판 / 값 7,000원

절에 오래 다닌 불자들조차도 무심히 흘려보냈던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찰 초입(初入口)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四物),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김현준 편역 신국판 값 5,000원

신간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1. 지장보살, 어떠한 분인가?
  - 대원의 본존
  - 무한자비와 파지옥의 지장보살
  - 현세의 행복과 지장보살
2. 지장기도법
  - 생활속의 지장기도
  - 영가천도기도법
  - 종합적인 지장기도



김현준 지음 / 4×6 판 / 값 3,500원

기도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취가 달라집니다. 이 책은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예찬과 열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이 책을 펼쳐들고, 각 장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틀림없이 입장을 소멸하고 영가천도·소원성취·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감히 권하합니다. 이책에 의지하여 기도를 해보십시오!

흔히들 지장보살은 영가천도의 보살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장신앙 속에는 영가천도뿐만이 아니라 행복과 깨달음, 성불의 비결까지 간직되어 있습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기도를 비롯하여, 생활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